

포천YMCA리틀야구단 동계수련회

서울광진구리틀야구단과 자매결연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서울광진구리틀야구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1월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동안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광진구 15명, 포천 10명 등 25명이 참가해 산정호수 눈밭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난 후 온천욕을 즐기고 나서 식사후에 김석영 광진구 리틀야구단 감독(전 롯데디자인트선수)으로부터 야구규칙과 경기진행 등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특히 이날 밤에는 선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꿈을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영북중학교에서 미니 게임을 개최하여 선수들에게 알찬 수련회가 되도록 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 나선 김석영 감독은 "엘리트 야구보다는 리틀야구단에서 활동한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에 데뷔하여 멋진 선수로 성장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리틀야구단이 25개, 엘리트 야구단 108개가 운영중이다. 김 감독은 왜 엘리트 야구를

안하고 리틀야구를 하는 이유는 리틀야구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성장 선을 고려하는 스포츠과학적 원리에 입각해 조금씩 자주 운동하여 생각하는 야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날 수련회를 마련한 장승호 포천시야구협회장은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실내동계 훈련장을 가산면 금현리에 마련하고 피칭머신기도 일본에서 도입하여 날씨가 추운날에도 실내훈련장에서 연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포천 YMCA사회인야구단이 창단식을 갖고 운동과 활동을 시작했으며 동계훈련장을 리틀야구단과 사회인야구단이 함께 사용해 나갈 계획이다.

장 회장은 앞으로 리틀야구단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인야구단의 리그운영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특히 오는 7월24일부터 8월5일까지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회 KOB배 대회에 포천YMCA리틀야구단이 처녀출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촌 · 행정기관 相生 토대마련

환경자원과-신북면 계류1리 자매결연



포천시청 환경자원과(과장 윤길현)는 1월26일 신북면 계류1리 마을과 1촌1부서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포천시에서 1촌1부서 결연으로 농촌사랑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 100여명, 환경자원과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윤길현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마을주민과 행정기관이 한결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더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영수 이장은 "1촌1부서 자매결연 사업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행정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경자원과는 경로당에 29인치 컬러TV 전달식과 함께 사전에 경로당, 화장실, 마을회관 등에 고장 난 전등을 모두 교체해 주었으며, 마을에서는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만찬 자리를 조성하여 모처럼 마을에 웃음이 가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웃사랑 실천합니다"

포천시 푸드뱅크 사업 돋보여

포천시는 군내면 구음리에 위치한 포천푸드뱅크를 통해 음식물의 기부를 통해 음식물의 낭비를 방지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여유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28개 사업체에서 1억4천7백만원의 음식물을 기탁받아 개인 289명과 32개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했다.

또한 설떡국 나눔 사업을 통해 120가정에 떡국을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 200가구에는 삼계탕을 제



공했다.

2007년에도 포천푸드뱅크에서는 음식점, 식품제조관련 업체에 기탁 홍보활동을 통해서 여유 먹거리를 보다 빨리 기탁 받아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YMCA 회원확장 결의대회

포천YMCA창립준비위원회는 1월 25일 오후6시 푸른언덕에서 4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확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2년 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회원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③ 독수리(Black Vulture)

하늘의 제왕-매년 1천여마리 찾아옴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냥은 전혀 못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자연의 청소부입니다.



2007. 1. 21. 군내면에서 촬영

독수리의 독자는 대머리쫄자로 머리의 일부가 대머리인 새라는 뜻인데, 이는 죽은 동물의 뼈속까지 머리를 쳐박아 내장이나 살을 뜯어먹다 보니 목의 깃털이 없는 대머리로 진화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마리 정도가 서식한 것으로 알려진 독수리는 매년 1000여 마리 정도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이들은 주로 1~2년생의 어린새들로, 먹이가 부족한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죽기도 하며, 독극물로 죽은 기러기나 오리 등을 먹고 2차로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우리 고장에 약 200여마리의 독수리가 찾아 왔는데, 이는 인근 축사에서 사육중 죽은 가축을 먹이로 주었더니, 철원 파주 남양주 등지의 독수리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느라 진풍경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에는 A1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하지 못해 철원 및 파주 남양주 등지에서 월동을 하던 독수리들이 먹이를 찾아 이천 마산 등지까지 내려가있는 상황입니다.



2006. 1. 20. 작년 겨울 소울을 송우리를 찾아온 독수리의 모습 촬영

몽골초원에서 번식을 하며 겨울철에는 1000여마리 정도가 한반도를 찾아 오는데 이들에게 가장 질실한 것은 월동지인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무사히 겨울을 마치고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또한 월동지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고 돌아가면 다음해 번식율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번식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약 6500만년전에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니 약 450만년전부터 살아온 인류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살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몽골과 한반도를 오가며 살아온 이 땅의 터줏대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기 이전에는 이땅에 많은 들짐승들이 있어 독수리의 먹이가 풍부했었지만 요즘은 사람이 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주릴 수 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멸종위기에 처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보호조류인 독수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고있으나 조류독감을 옮기는 매개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먹이주기 행사를 하지 않아 굶주림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독수리의 일상이 참으로 가련할 뿐입니다.

독수리가 한반도에서 무사히 겨울을 나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보호와 관찰은 물론이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배려가 독수리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장인정신의 혼과 멋이 담긴

플러싱업 자기방가구 직영 매장

- 본사: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483
- 매장: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441-1
- TEL : (031) 542-3393
- H.P. : 011-292-3846 / 011-263-9148
- http://www.jagibang.com

